# 보성군, 톡!톡! 튀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 개최

## 16일까지 기수별 약 40명씩 총 3회로 나눠 진행

## 김철우 군수와 '소통의 시간' 격의 없이 의견 나눠

보성군은 지난 9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하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성군 톡!톡! 튀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MZ세대 공직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일부터 16일까지 기수별 약 40명씩 총 3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나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조직 적응 교육, 직원 간 신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트레킹 등 힐링과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됐다.

특히, 직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 모 직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보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보성군의 주역이 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고 조직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고흥군, '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가속화

## 198억 투입…봉안당·자연장지 등 조성

고흥군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건축비 부분 책정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올해 3월부터 군의회와 다각적인 검토와 벤치마킹, 현장보고 등을 통해 당초 97억 원에서 101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일대로 63,895㎡ 규모에 10,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8,500기)과 자연장지(2,300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토지매입이 80%가 완료된 가운데, 군관리계획 세부 일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당초계획에 미반영된 시설 내부의 추모실과 사이버 추모관,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기능을 추가해 설계에 반영하였고, 올해 10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이면서 품격있는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 설치로 그동안 타 지역에 있는 장사시설을 이용해왔던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2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자연적인 장례문화에 발맞춰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군립 하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해룡면 청년회, 지역 주민 어린이들과 해룡천 살리기에 기여

## EM흙공 던기기 및 치어 방류를 통해 해룡천 맑은 물 지키기 동참

순천시 해룡면 청년회(회장 최승용)는 최근 지역 주민 및 어린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해룡천 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및 토종 어족자원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존 실천을 생활화한다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개최되었으며, 순천만과 연결되어 자연환경과 수생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룡천이 지역 어린이들의 정화 활동 덕으로 더욱 맑아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EM활성액과 황토, 발효촉진제 등을 섞어 발효시킨 EM흙공 1,200여 개를 제작하여 해룡천에 던지고, 우리나라 대표 토종 민물고기인 붕어 17,000마리를 해룡천에 방류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였다. 이후, 해룡천을 돌며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도 함께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해룡천이 깨끗해져서 오늘 방류한 붕어가 잘 자라면 좋겠어요"라며 "우리 순천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용 해룡면 청년회장은 "해룡면과 순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해룡천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해룡면 청년회가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래 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 폐기물 반입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

여수시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운반자에 대해서도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읍면동별 전담제로 지정, 현장 확인 후 반입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8일에는 만흥위생매립장 이용업체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정책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불법 반입 집중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시는 사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흥위생매립장의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해 여수시 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매립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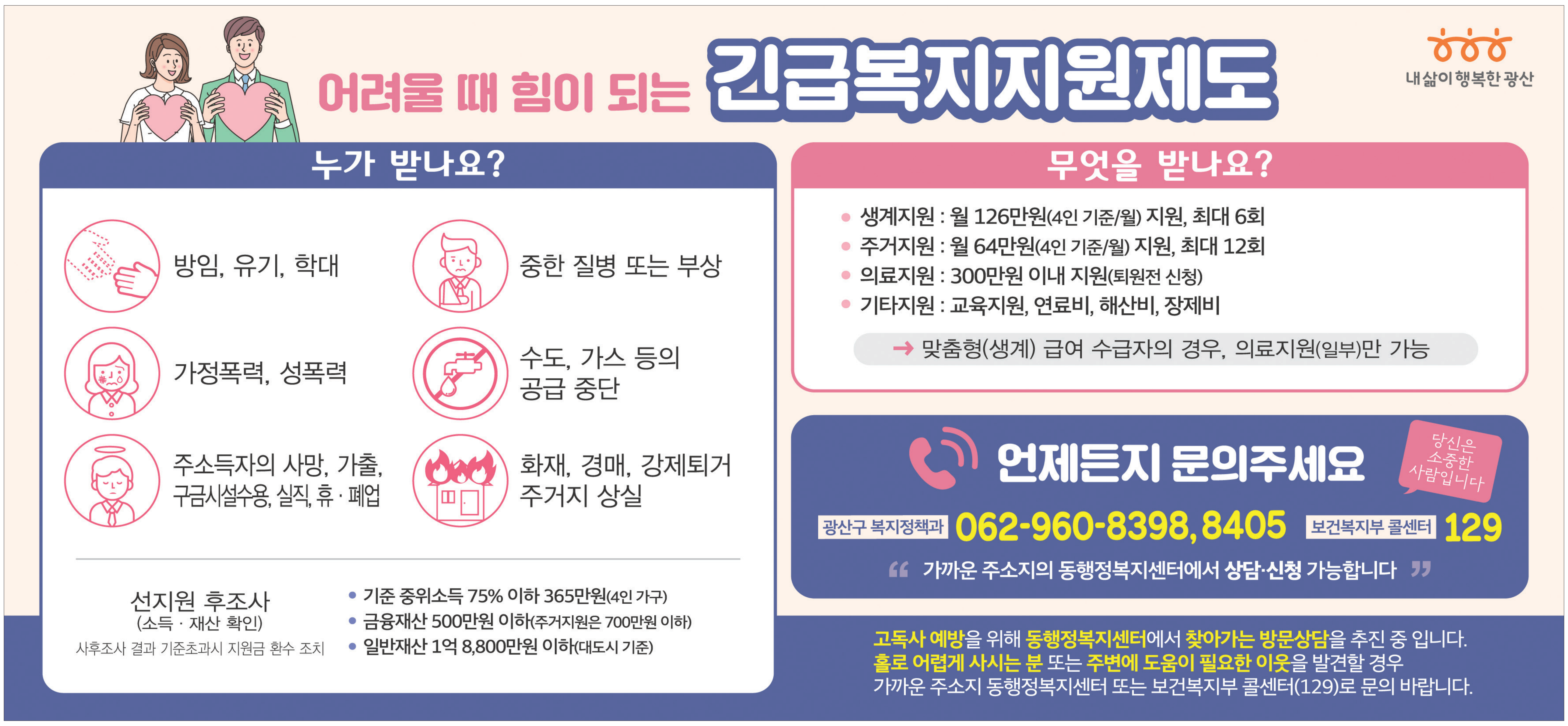
# 광양시, 옥실정보화마을 지역 봉사단체와 체험행사

## '감자 캐기 체험' 170여 명 참여

광양시는 10일 옥실정보화마을에서 지역 봉사단체와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험행사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돕기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옥실정보화마을과 포스코 프렌즈 봉사단, 가야라이온스클럽 봉사단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 시는 이날 수확된 감자를 '농산물 꾸러미'로 포장해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에 100박스를 전달할 계획으로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을 더했다.

이용신 정보통신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섬진강재첩(http://sw.invil.org) ▲고로쇠(http://gorosoe.invil.or) ▲매화(http://maehwa.invil.org) ▲옥실(http://oksil.invil.org) 등 4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